

일본에 대한 쌍이고쌍인 분노의 폭발

지금 온 남북 땅이 무분별한 경제침략에 나선 일본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불도가 너무나 높고 있으며 섬나라 속속들을 향한 저주와 성토로 잠들지 못하고 있다.

일본당국이 이번에 감행한 남조선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는 섬나라오랑캐들의 제2의 침략행위로서 남조선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일본이라는 섬나라속속들이 우리 조선에 퍼붓는 군화발을 들이밀고 남강도적이며 범죄적인 《울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4년,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때로부터 74년.

조선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일본의 군국주의침략본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일본은 우리 겨레와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힌 침략의 과거를 아직도 부인하고 반성과 사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남조선에 강도적인 수출규제조치를 취한데 이어 전략물자수출심사 우대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사실 전범기업의 책임을 규제한 남조선대법원의 최근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것을 기회로 남조선에 비례한 경제보복조치를 련이어 취하였다.

전범기업을 비호두둔하며 국가가 나서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행동을 하고있는 것은 한마디로 일본에 아무런 죄도 없고 아주 떳떳하다는 수작이다.

2차대전이 끝난이래 오늘까지 일본은 과거를 성근히 인정하고 사죄배상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

돌이켜보면 저들의 침략무력을 서울에 끌어들여 조선왕궁을 2중3중으로 포위하고 강도적인 《울사5조약》을 날조하여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은 일제침략자들이다. 이때부터 일본사투라이들은 40여년간이나 조선을 강점하고 야만적인 중세기적압축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마저 없애려고 발악하였으며 수백만명의 인민들을 전쟁대포탄, 로동노예로 끌고가 짐승처럼 학대하고 무참히 살해하였다.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고도 저들의 범죄적인 식민지통치가 그 무슨 《조약》에 기초한 합법적인 것처럼 파렴치하게 역사왜곡행위를 일삼은 일본이다.

한두명도 아닌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끌고다니며 일본군성노예로 삼은 천주에 용서 못할 만인류적죄악을 저지르고서도 피해자들을 《전쟁의 매춘부》로 매도하고 국가와 군대가 조직적으로 이에 관여한 사실도 한사코 인정하지 않은 일본이다.

일본의 파렴치성은 독도강탈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있는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신성불가침의 땅인 독도를 1905년에 불법무법의 허위문서인 《시마네현고지40호》를 통해 저들 명토에 강제 편입시켰던 일본은 오늘까지도 독도가 제땅이라며 내놓으라고 강변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남강도투리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강제징용범죄도 마찬가지로 있다. 일본이 식민지강점기간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징용, 징병으로 강제로 끌어가 죽음의 고역장에서 마초처럼 부러먹고 종알반이로 내세우고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는 것은 력사에 새겨진 갈수록 없는 사실이다.

《경제대국》이라 자처하는 일본의 《번영》의 밑바탕에는 무수한 조선사람들의 피와 시체가 깔려있다. 간악한 일본은 조선사람들의 고통을 재내 발전소재를 쌓고 수천척 지하막장의 탄들을 캐냈으며 군수물자들을 대량 생산하였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조선인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생매장하고 학살하는지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이 과거에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자면 일본이라는 섬나라를 통째로 섬겨버쳐도 모자란다. 그런데도 남조선대법원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비례한 보복조치로 대답하였으니 얼마나 간둑하고 파렴치한 나라인가.

과거범죄를 인정사죄하지 않고있는 것은 그러한 과거범죄를 다시 저지르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과거범죄를 부인하고 오히려 합리화하려고 하면서 위협천만한 제정의 길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일본이 벌리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 경제침략행위는 오랜 기간 제정의 기회만 노리면서 힘을 축적해온 일본이 해외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음을 알리는 위험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에 철저히 예속시키자는 심산이다.

그뒤에는 일본의 군사적침략의 포문이 조선반도를 겨누고 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을 이루어보려고 그동안 많은 군사비를 투자하여 군사적임을 축적해왔다.

지금 일본의 아베정권은 《평화헌법》까지 뜯어고쳐서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발악하고 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남조선에 대한 지배만이 아니다.

남조선에 손아귀에 넣고 나아가서 전조선반도를 다시 집어삼키려는 것이 섬나라오랑캐들의 검은 흉계이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침략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로서 조선반도에 대한 《제2의 침략전쟁》행위나 같다.

우리 민족의 화해단합을 가로막고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아베당파의 책동에 누구나 분노를 금지 못하는 우리 겨레이다.

2019년, 우리 겨레와 세인이 지켜보는 속에서 퍼붓는 승냥이의 이빨을 다시 드러낸 섬나라 일본.

남조선을 병탄하려고 경제침략의 포문을 연 일본의 모습은 114년전 군대와 대포를 끌고와서 조선왕궁을 점령이 포위하고 나라를 내놓으라고 강박하던 일본의 침략광기 그대로이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너까리며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때리고 학살하던 살인귀들의 횡포 그대로이다. 조선사람들의 피땀을 재내고 귀중한 자원을 약탈하다못해 가정에서 쓰는 놋그릇, 숟가락, 저가락까지 약탈하던 그 흉혈귀들의 상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에 온 남녘이 분노로 잠들지 못하고 있다. 가슴에 사무친 일본에 대한 분노심을 폭발시켜 반일투쟁에 총력기해나서고 있다.

지금 이 시각도 천년속적 일본의 경제침략행위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일본은 대대손손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들 특이한 천년속적이다. 특히 수십년간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 등과 불행은 세계 그 어느 력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아직까지도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형 과거범죄들에 대해 리골만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 격분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지난날의 국가적경제침략범죄를 한사코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아 국제적비난의 초점이 되고있는 일본이 참혹한 피해자인 조선민족의 존엄을 지금도 백주에 무참히 란도질하는 야수적본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는 것이다. 얼마전 일본이 경제징용피해자배상과 관련한 문제를 둘러싸고 남조선에 무억보복조치를 취해나선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서 섬나라속속들의 침략군성과 파렴치성을 잘 말해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문제는 일본의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규탄해나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피해자인 일본의 권역을 드는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쓸개빠진 친일매국당풍이다. 보수패거리들이 어제는 일본의 과거죄악을 백지화해주는 별의별 매국당들을 다 일삼더니 지금은 현

법을 뜯어고치려 하면서 군국주의재침착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는 일본의 망동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있으니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이다. 이런 친일매국노들이 있어서 일본이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반일투쟁이 고조되고 교원들은 물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반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고있는 것은 일본반동들에 대한 쌍이고쌍인 분노의 폭발로서 지극히 정당하다.

죄를 저질렀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과거죄악을 반성사죄할 줄 모르는 철면피한 나라, 해외침략야망이 끝수에 막 차 과거범죄의 전철을 다시 밟고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반동들은 명심해야 한다. 저들의 치명적인 과거범죄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원한으로 새겨져있으며 지금도 천년속적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끓어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겨레는 세기를 이어가며 조선민족에게 저지르고있는 일본의 범죄적행위를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며 거이 사회와 배상을 받아내고 야말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 기술대학교원 김성혁

세대를 이어 끝까지 결산해야 한다



일본과 끝까지 결산하려는 견결한 의지의 과시

남조선에서 반일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연대를 비롯한 5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사의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규탄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을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7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초불집회를 열었다. 수천명의 중년이 참가한 집회장에서는 《아베를 규탄한다!》, 《경제침략 규탄한다!》, 《천일적제정산하자!》 등의 구호가 련속 울려 퍼졌다.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각종 투쟁단체들과 시민들도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초불집회를 매일같이 벌리고 있다. 상인과 자영업자, 청년대학생, 고등학교학생, 가정주부를 비롯한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의 참가하에 일본상품배척범시

민운동과 천일적제정산법 국민운동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한편 50여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월 26일 《일본수출규제공동대책 지방정부련합》을 구성하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모여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였으며 부산과 울산, 대전, 충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반일련대투쟁조직들을 내오고 다양한 반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시위투쟁참가자들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우 토요일마다 초불집회를 진행하며 8.15에는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초불투쟁을 전개할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자한당》것들과 구유보수언론들을 《아베의 앞잡이정치세력》, 《천일적제정세력》으로 규탄격려해나서고 있다. 남조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은 점차 조직적인 대중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7월 4일 일본은 남조선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을 문제삼아 반도체부분품수출제한조치를 취한데 이어 8월 초에는 남조선에 《백색국가》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하는 등 경제침략의 문호를 점점 넓히고 있다.

저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과거범죄에 대한 명백한 부정적이고 극도에 이른 군국주의침략야망의 발로이다. 과거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망 74년이 되어오는 지금도 저들의 엄청난 과거죄악을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고 배상도 계속 회피하고있는 철면피한 일본이다. 도리어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규제한 남조선대법원판결을 문제삼아 경제보복조치를 취하는 남강도적인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행동이다. 사투라이후에들의 침략군성의 발로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남조선에 저들의 하인으로 굴복시키고 나아가서 남조선을 경제식민지로 타고앉히려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

세기는 바뀌어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고이 간직하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침략광기이다. 남조선도적에서 들불처럼 번지고있는 각종 반일투쟁들은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천년속적 일본에 대한 쌍이고쌍인 분노의 폭발이며 일본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시이다.

일본의 남강도적인 경제침략행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고조되는 투쟁열기는 조국해방의 아침이 밝아왔던 8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재석

남조선언론들 소녀상전시를 가로막은 일본을 규탄

지난 5일 남조선 《경향신문》,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가 국제예술편지사회에서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전시를 강제로 중지시킨 일본을 규탄하는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얼마전 일본에서 진행될 국제예술편지사회에서 출품되었던 소녀상이 일본당국의 공공연한 압력으로 철거

되었다고 단죄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비롯하여 그동안 일본정부의 탄압으로 전시되지 못하였던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어있었으나 전시회가 개막되자마자 일본정부의 로골적인 중단압력과 우익세력의 위협에 부딪혔으며 결국 전시회에서 소녀상이 사흘만에 강제철거되고 해당

대결에 환장한 반역배들의 망동이다.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비도입책동으로 말미암아 엄

전시회도 통째로 중단되었다고 사실은 개탄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해외에서도 자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난 2일 도이철란드의 한 전시관에서 시작된 전시회에 소녀상이 전시되자 철거를 압박하였다고

사실은 이보다 앞서 어느 한 기념관에 전시되었던 10cm도 채 안되는 작은 소녀상마저 일본정부가 기념관측을 압박하여 철거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경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에 대해 경제침략으로 보복하고 예술마저 짓밟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사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대면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정상적인 군사력강화조치에 대해 함부로 비방하며 시비하는 남조선 《국회》떨거지들이야말로 정적인 고사하고 초보적인 리성도 부족하고 부남관계를 파국과 대결로 몰아가는 추악한 반민족적망동인 것이다.

외세가 우리 강토에 살인

초보적인 리성도 없는 추태 증한 국면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국회》나부랭이들이 저들의 북침전쟁준비소동은 가리운채 그 누구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놀음을 벌린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고 부남관계를 파국과 대결로 몰아가는 추악한 반민족적망동인 것이다.

준비를 마음대로 끌어들여 전쟁놀이를 벌려놓고 저들의 먹살을 쥐고흔들어도 한번 한마디 못하는 추물들이 동족의 정당한 조치들을 걸고드는데만 눈이 빨개 돌아다니는 《국회》나부랭이들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혈세도적》, 《더러운 시정배》, 《눈먼 정치인》으로 손가락질받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초보적인 리성도 없는채 또 하나의 동족대결망동을 저지른 남조선의 《국회》떨거지들이 추악한 《결의안》 채택놀음의 대가를 독둑히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신성일

